



# 양양소식

**군정방침**

I. 활기찬	지역개발
I. 독특한	관광진흥
I. 풍요한	복지실현
I. 찬란한	문화창달
I. 절 높은	자치구현

발행인:양양군수 / 편집인:기획감사실장 / 발행처: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Tel (033)670-2223 Fax(033)672-4242



### - 새해 떡국 나누기, 소망기원 촛불 밝히기 / 낙산해수욕장 등 다채로운 행사 풍성 -

전국 최고의 해맞이 축제로 명성을 얻고 있는 양양해맞이축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낙산해수욕장을 주무대로 낙산사와 하조대 해수욕장, 남애항, 설악산 대청봉 등 6개 지역에서 계미년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축하행사로 개최된다.

수해의 아픔을 딛고 해맞이 축제 준비로 분주한 군은 성공 개최를 위해 낙산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 가운데 관광객들과 함께 소망기원 촛불밝히기 행사를 비롯해 새해소망 떡국나누기, 동해신묘제례 등 9개 단위행사를 펼친다. 또한 낙산사는 같은 날 낙산사 경내에서 소망기원 연등달기와 범종 타종식, 해맞이 대법회를 실시하고 양양지역 읍면별로는 설악산 대청봉과 하조대 해수욕장, 남애항 등에서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계미년을 앞두고 펼쳐지는 올해 해맞이 축제는 그동안 군이 주도하는 행사에서 탈피해 현남면 인구리와 남애리 주민들의 경우, 주민 1백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음료수와 고구마, 감자 등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03년 양양해맞이축제를 앞두고 백사장 일제청소 및 쓰레기 수거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공원환경 정비작업을 실시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9일까지 인력 18명과 모래청소기, 트랙터, 불도저 등 장비를 투입해 낙산해수욕장내 백사장 평탄작업과 묻힌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정비사업은 현재 100%의 진척율을 보였으며, 낙산해수욕장을 비롯해 전진항~남대천하구까지 폭넓게 실시됐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해맞이축제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백사장과 송림, 상가주변, 간선도로변 청소를 중점 실시했으며 특히 공원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공사장주변 통행불편사항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상민소장은 "태풍 루사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복구에 나서는 상황에서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해맞이축제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직원들 모두가 전념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양양 해맞이축제에 참가해 즐길 수 있도록 주무대인 낙산해수욕장 주변정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양양해맞이축제는 이달 31일부터 2003년 1월1일까지 이틀간 낙산해수욕장을 비롯한 낙산사, 대청봉, 하조대, 인구항, 남애항 등 양양관내 6개 지역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진다.

## "주민자치센터 개소"

- 현북면 사무소 2층 ... 지역공동 구심체 -

다양한 취미와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고 이웃주민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현북면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12월 23일 개소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과거 행정위주의 면사무소 기능을 개편하여 사무와 인력을 감축 조정하고 기존시설물의 여유공간을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새롭게 조정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 속의 문화·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활동의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취미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며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의 공간으로,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식을 형성시키는 자치활동의 구심체로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을 때 생활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주는 귀중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완벽한 제설작업 주민호응"

- 민관군 합동작전 돋보여...지역업체 제설장비투입 -

설악권이 지난 8일부터 내린 폭설로 최대 1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한 가운데 양양군이 민관군 합동 제설작업으로 3일만에 양양읍내와 관내 농어촌마을 도로에 쌓인 눈을 말끔히 치우는 등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1일 군에 따르면 군이 임대한 포크레인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 60여대와 58개 마을에 배치된 트랙터용 제설삽날을 포함해 하루 2백여대의 제설장비가 3일간 투입됐다. 또한 지난 수해지원에 적극 나선 육군 총용부대와 일출부대 장병 1천여명이 매일 제설작업에 투입, 도로를 비롯해 읍내 골목과 마을 곳곳에 쌓인 눈을 치우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했다. 인근 시·군에 비해 발빠른 폭설대처로 높은 평가를 받은 군은 지난 8일 폭설이 내리자 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건설과 공무원 30명이 긴급 제설작업 지휘에 나서는 등 일사불란한 대처능력을 발휘했다.

이에 따라 인근 시·군 주민들이 폭설로 인한 불편사항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나, 군은 단 1건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지 않는 진기록을 남기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수해로 재해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된 주민들도 마을주변 제설작업에 적극 동참했으며, 폭설로 복구공사를 중단한 지역 건설업체들은 보유한 중장비를 무료로 가동하며 3일간 제설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군의 철저한 폭설대비 제설작업은 수해에 따른 대처능력 향상과 민관군의 유기적 참여에 따라 돋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산불예방 최우수 자치단체의 명성을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군관계자는 "폭설에 발빠르게 대처한 이번 민관군 합동 제설작업은 자연재해에 따른 무력한 모습을 극복하는 모범적 사례"라며 "협조한 지역업체와 군부대 장병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 의 정 소 식

## "수해복구 집중검증 돋보였다"

- 제9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긍정평가 -

제97회 정례회를 진행중인 군의회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실과소별로 제출된 2백15건의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군의원 6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4명 등 10명의 감사반이 편성돼 감사활동을 진행했고, 모두 2백15건의 처리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사진설명> 지난 12일 개최된 군의회 제9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존의 상평보에서 범부방면으로 도수로만 설치돼도 양수가 충분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 같은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은 13건 △건의 사항은 39건으로 나타났다.

오세만의원은 "동절기 화재예방차원에서 수해로 컨테이너 하우스 생활을 하고 있는 1백53동에 대한 이주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주가 불가능한 17동에 대한 보온 및 급수시설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주식의원은 "도로면상에 위치한 국공유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됨에 따라 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에 의존하지만 말고 실태조사 이후 과감히 정비해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우섭의원은 "관내 도시계획지역내 소규모 주거용 토지에 대해 균유지를 매각하고 시설용지중 활용 불가능한 토지는 용도폐지해 주민들에게 불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김주혁의원은 "월천스키장 조성과 관련해 설악권은 겨울철 눈 보존기간이 적어 스키장 운영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박태석의원은 "서면 범부보가 수해로 유실된 이후 재설치를

## "펜션사업 관광양양 활성화 기대"

- 우리지역 9개업체 참가... 21세기형 관광행태 관심 -

우리지역이 국제공항 개항과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등 관광시설 및 사회간접 여건이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경기 부양을 위한 숙박과 취사, 자연체험 연계관광을 위한 펜션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 자연체험 관광 등 21세기형 관광패턴 변화에 따라 들어선 펜션업체가 모두 9개로 대단위 숙박단지과 소규모 민박을 혼합한 형태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군은 이에 따라 지난 17일 오전 11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펜션하우스 업소 9곳과 고원주 관광문화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활성화를 위한 펜션하우스업소 감담회를 갖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존의 민박형태와 연계한 특색 있는 펜션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군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펜션하우스는 제주도가 관광특구의 장점을 살려 특별법으로 제정, 관광객이 숙박과 취사, 자연체험 관광을 위한 시설을 통칭해 일컫는 것으로 건축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제주도에 보편화된 관광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은 이번 펜션하우스 업체 간담회를 토대로 강원랜드어단 홍보와 가을단풍시즌 보은세일 등 다양한 관광시책과 맞물린 정책생산에 나설 계획이다.현재 우리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펜션업체는 서면의 불바라기 산장을 비롯해 한계령 오색펜션 등 9개 업체로 여름과 가을 단풍철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 "새해예산 1천3백57억 7천만원 "

양양군의회는 2003년도 새해 예산으로 1천3백57억7천1백91만9천원을 확정 통과 시켰다. 군의회는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수입·출입 예산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수정 가결했다.

일반회계는 1천1백4억3천8백여만원으로 올해 당초 일반예산 보다 증가한 가운데 지방세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증가했고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채 발행 등이 줄어들었다. 당초예산 수입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27억9천여만원이 증가한 4백96억9천8백여만원, 양여금은 1백442억8천여만원으로 계상했다. 특별회계는 전체규모 2백53억3천2백93만2천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백24억2천4백49만6천원보다 13% 늘어난 2억9천여만원이 편성됐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2억1천4백65만3천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55% 증가했으며, 지역개발사업 99억4천6백96만2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4억5천6백19만5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0억9천69만5천원이 편성됐다. 2003년도 새해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3억9천여만원과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출부분 7억4천여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 - 비행기 타기 캠페인 -

도내 유일의 국제공항인 양양국제공항이 5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4월 3일 개항을 하였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은 명년도 착공 예정인 동서·동해고속도로, 동북아 물류 거점이 될 양양신항만 건설과 함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리는 21세기 우리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관광투어의 개발

그러나, 개항초기 탑승을 저하로 하루 7편이던 국내선은 4편으로 줄어들었고, 주 2회 운항되던 유일한 국제노선이던 상해노선 마저도 운항이 중단되는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과 함께 국도도 대부분의 구간이 4차선으로 직선화되는 등 육상교통이 상대적으로 편리해졌고,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여름철 긴 장마와 수해로 인한 피서객과 관광객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이 탑승률을 끌어 내린 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공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로서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경제성이 있는 곳에만 시설하려고 한다면 지역간 불균형 개발의 문제와 함께 특정지역의 낙후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567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동해안의 중심지 양양에 공항을 건설하였다고 봅니다.

'98년 개항한 청주국제공항의 경우에도 배후에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청주·충주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부를 배후도시로 하고 있어 공항여건이 매우 유리함에도 개항 후 3년만에야 국제노선이 개설되었고 개항지 지정도 2001년 9월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양양국제공항도 지금부터 공항활성화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양양국제공항은 반드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개항지 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항로개설이 선행되어야 CIQ기관이 상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질문과도 같다고 봅니다. 개항지가 지정될 경우 비 개항지 공항의 번거로운 출입허가절차 및 출입허가 수수료 납부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면세점 개설 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열악한 지방공항의 공항활성화를 위한 직항로 개설의 필수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직항로 개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항이 항구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정기노선의 개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노선이 개설되어야만 단체관광객뿐만 아니라 개별관광객의 입국까지도 가능해 질 것이며 이와 연계한 관광 또한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기 직항로의 개설은 운항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운항횟수가 증가할 것이고 관광객들도 양양으로 들어와 관광 후 국내선으로 서울 등지로 이동하거나 서울 등지로 입국하여 양양으로 출국한다면 관광객들에게는 별로 불편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항로의 개설은 개설초기 항공사의 적자운항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므로 항공사의 적자보전 대책의 마련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항공기타가운동 동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일본 요나고시는 한국과 직항로를 개설하면서 적자를 요나고시가 보전한 사례가 있으며, 일본 니가타시의 경우도 직항로 개설을 위하여 상공인들이 계획적으로 비행기 타기 운동을 벌임으로서 한국과 직항로를 개설한 사례는 직항로 개설에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직항로 개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우리군민에 대하여는 1인당 편도 3만원의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와 인근 시·군에도 적자 보전을 통한 직항로 개설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선도 서울노선의 운항횟수 증가와 함께 광주·제주노선도 개설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관광자원의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도를 관광의 1번지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지금까지 교통의 불편으로 시간에 쪼들린 외국인들이 거의 찾지 못했었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강원도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강원도 관광은 주로 자연을 관광자원으로 하는 내국인 관광지 수준으로 아름다운 자연이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설악산까지 찾아 올만한 메리트가 없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외국인이 오고싶고, 보고싶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간직한 색다른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살거리를 우리만의 문화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홍보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나리타·칸사

이공항에서 보듯이 국제공항들은 대부분 한시간 이상의 거리에 배후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양양국제공항은 20분 거리에 속초시가 있고 40분 거리에 강릉시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은 소음만 끌어안고 수혜는 인근도시에 넘겨주는 시행착오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공항주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10만평 규모의 문화공간을 조성 중에 있고, 대청봉 케이블카 가설과 월천 스키장·장승지구 관광개발사업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명년도부터 5일장이 열리는 양양재래시장을 재정비하고 특색 먹거리골목도 만들어 관광상품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비행기·카트·경륜·경선 등 레저사업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감으로서 5년후에는 적어도 공항 수혜의 50%이상을 우리 군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관광투어의 개발과 이를 연결하는 교통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의 1번지 설악권에는 아직도 관광지를 연결·순환하는 관광투어 셔틀버스 조차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국제공항·오색·장수대·백담사·건봉사·통일전망대·척산·대포항·설악산·낙산 등지를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있다면 관광객들은 승용차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을 것이며 비싼 택시나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지역을 관광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항이용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문화유적 탐방코스·즐길거리·먹거리코스 등 우리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는 우리군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개항지 지정·직항로 개설·설악권 순환 셔틀버스 운행·비행기 타기 운동 등은 도와 인근 시·군이 힘을 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양양국제공항 개항이 소음·공해시설이 아닌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항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군민들의 도움이 있음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료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군정에 동참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동차보다는 비행기를 이용해 주시고, 친절·청결·질서를 생활화 해 나간다면 양양국제공항은 활성화 될 것이며, 공항이 활성화 될 때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며, 지역경제 또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서면 떡마을' 아름답마을로 바뀐다 "

- 송천리 소재지구 작업장 착공 ... 미래농촌 제시 -



<사진설명> 사진은 지난27일 열린 떡 작업장 부지 착공식에서 시삽하는 모습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불리고 있다. 군은 이날 사업추진을 시작으로 송천리 소재지구를 △농촌체험과 휴가를 위한 공간 △소득증대를 통한 살기좋은 농촌마을 △환경친화적 기반시설 확충 △전형적 농촌환경 정비사업 등 선도마을로 이끌 계획이다.

전국 최고의 '떡마을'로 유명한 서면 송천리 소재지구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시범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지역주민들과 이진호 양양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천리 마을내 떡가공 작업장 건립부지 착공식을 비롯한 사업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서면 송천리 소재지구는 오는 2003년까지 10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전원공간으로 탈바꿈하며 특히 최신식 떡가공 작업장 설치로 안정적 판로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모범농촌을 대상으로 선정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선도농촌형과 전통농촌형, 생태관광형 등 3가지 테마로 공모해 서면 송천리가 선도농촌형 마을로 뽑히는 등

## " 오색케이블카 설치 홍보 돌입 "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대청봉구간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설치 가설에 따른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가는 등 본격 준비체제에 돌입했다.군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 케이블카 설치 홍보용 홈페이지

이지 구축을 목표로 △케이블카 가설의 필요성 △등산로 훼손실태 △건설구상에 따른 청사진 제시 △환경친화형 케이블카 운영사례 △인터넷상 여론 설문조사 등이 담긴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속초지역의 주민들도 설악권 경기 활성화와 연계관광을 위해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고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 " 움직이며 관광양양 알려요! "

- 지역축제 이미지 극대화로 관광활성화 모색 -

계미년 새해를 앞두고 관광1번지를 목표로 관광활성화 정책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군이 관광홍보를 위한 '움직이는 관광홍보 버스'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당초 수해 이전부터 축제의 고장으로 유명한 양양지역의 홍보를 위해 관광홍보용 버스제작에 들어가는 등 관광활성화에 적극 나섰으나, 수해로 연기되면서 이번에 홍보차량을 선보였다. 군의 이미지를 축약해 표현한 움직이는 관광홍보 버스는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모티브로 양양에서 개최되는 송이와 연어, 현산문화제 등 지역축제를 형상화한 사진들을 게재해 시각적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군이 지역축제를 통해 관광1번지의 명성을 굳힌다는 홍보전략으로 선보인 홍보차량은 양양을 찾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관광편의 제공은 물론 설악권 연계관광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 자철광 종합관광 휴양지개발 "

- 서면 폐광지 일대 ... 최종 용역보고회 -

지난 95년부터 폐광된 국내 최대의 철광 생산지인 서면 장승리 일대를 종합휴양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미래 복합형 청사진이 최종 제시됐다. 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진호 군수와 박상형 의장 등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 철광 폐광지 종합휴양관광지 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 및 개발구상 최종용역보고회를 갖고 서면지역을 자철광을 이용한 건강 종합휴양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종 용역보고회는 지난달 8일 개최된 중간 용역보고회(본보 11월18일자 보도) 결과를 토대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교육과 즐거움, 환경, 주민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형 복합단지로 개발 구상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폐철광 부지를 이용한 지역의 역사를 보전과 테마관광지 개발로 자연친화적 재활용 계획을 구상하고 자연 생태계 복원을 통한 환경관광지로의 적극적 유도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폐광지 개발로 도입되는 시설인 철광박물관을 비롯해 전략시설과 접객고정화시설, 지역활성화 시설, 보완시설, 지원시설 등 6개 테마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관광패턴에 따른 관광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철성분이 많이 함유된 지하수로 불리는 자화수를 이용해 추진되는 양양 폐광지 미래 복합형 관광단지 개발은 그동안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와 폐광지 개발로 보여준 성공사례를 토대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군의 의뢰로 천지인 엔지니어링이 조사한 이번 용역보고회 결과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의사로 폐광지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특색과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추진계획에 따라 부대시설이 갖춰질 경우, 전국 최고의 철광 휴양지로 각광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민자유치와 대부분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일양과의 협의가 최대 관건으로 남아있어 군의 사업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 군보건소 물리치료실 인기 "

- 2천5백여명 몰려 ... 면단위 주민들에 호응 -

군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과 부녀자는 물론 젊은층들에게도 호응을 얻는 등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일 현재까지 군보건소 물리치료실 이용객은 모두 2천4백36명으로 개장 당시에는 노인층과 부녀자들의 이용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근육통과 요통을 치료하기 위한 젊은층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98년 개장한 군보건소 물리치료실은 간섭흡입 치료기를 비롯해 통증제어 치료기 등 12종의 최첨단 치료기를 비치하고 5백원만 내면 모든 치료기의 사용이 가능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물리치료실 이용자 가운데 40~60대의 근육통과 관절환자가 많고 양양 5일장을 이용해 병의원이 부족한 면단위 주민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일 했어요!!!



<대만 관광객 입국> 국교 단절이후 처음으로 대만 관광객들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지난 22일 입국했다. 사진은 환영식 모습



<대만인 환영 리셉션> 지난 23일 낙산비치호텔에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대만 관광객들을 위한 환영 만찬회가 개최됐다



<독거노인 위안잔치>양양적십자 등 양양지역 봉사단체들이 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위안잔치를 열고 위로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 현북면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23일 이진호 군수와 김돈일 도의원, 오세만군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됐다.



<수해복구 유공시상식> 이진호군수는 수해복구에 공을 세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표창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외국인 주부 친정나들이>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들이 12월 한달간 친정나들이에 나섰다. 사진은 이진호 군수가 항공료 등 여비를 전달하는 모습

## "일출부대 제설작업 선봉부대"

- 하루 1천명 병력투입 ... 대민지원 돈보여 -

양양지역의 수해복구 선봉부대로 전국적인 명성을 높인 육군 일출부대(부대장 송영귀)가 수해 응급복구에 이어 지난 8일 폭설로 뒤덮인 양양과 속초일대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대민지원 최우수부대의 명성을 잇고 있다. 일출부대는 1m 이상의 폭설이 내리자 '양양지역의 농어촌 마을과 설악산 도로를 뚫어라'는 제설작전 명령을 내리고 하루 1천명의 장병들을 투입, 3일간 도로와 마을에 쌓인 눈을 말끔히 치웠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설악산으로 이어지는 설악동 마을에 병력 1백50명을 긴급 투입해 제설작전을 펼치는 한편 12일부터는 신흥사에서 흔들바위까지의 등산로를 뚫는데 성공했다. 일출부대 지휘부는 대설경보가 발효되자 부대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민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세우

고 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민관군 합동 제설작전을 전개했으며, 이에 따라 양양지역은 폭설에도 불구하고 차량통행과 주민불편 없이 제설작업을 마무리했다.

## "양양인구 늘어난다 "

읍내 인구가 1만2천명을 돌파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양양군의 인구가 3만명을 육박하는 등 점진적인 인구유입 현상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11월30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는 모두 2만9천9백91명으로 연말까지 3만명 돌파가 무난할 전망이다. 4백47세대의 양양읍 월리 푸르미 아파트에 입주 시작되면서 속초와 강릉 등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전한 것이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읍내 인구는 11월30일을 기준으로 1만2천2명을 기록했으며, 이같은 수치는 최대 인구수를 보이던 지난 99년의 1만2천66명에 근접하고 있다.

## "현성초교'신나는 학교상'수상 "

- 교육방송 주관대상 ... 한울타리교육결실 -

현북면 여성전리에 위치한 시골학교인 현성초교(교장 전세남)가 교육방송(EBS)이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선정한 '제1회 신나는 학교상'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이번 신나는 학교상은 전교생 23명과 3학급이 복식수업을 실시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양양출신의 전세남교장(사진)이 부임하면서 '신나는 산골학교, 작지만 자랑스러워요'란 주제로 전개한 '한울타리 교육'이 맺은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현성초교가 진행하고 있는 한울타리 교육은 인근지역 4개 초교와 연대해 개최하는 집단활동을 일컫는 '큰 울타리'와 복식학급의 어려운 여건극복을 위한 인근학교와의 교환수업인 '중간 울타리', 학년 구분없는 '작은 울타리', 도·농간 학생 교류의 확대를 위해 마련된 '울타리 없는(None)-울타리' 등 4개 울타리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10월 총동창회 창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현성초교는 자발적으로 작은 학교로의 발령을 요청해 부임한 전세남 교장의 노력으로 폐교위기를 극복하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매주 영어와 배드민턴 등 특색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있다.

## " '낙산배 포장·기능성 성과 "

-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4분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갖고 올해 주요사업추진 성과 및 내년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심의회를 통해 △식량작물의 고품질 생산력 재배로 경쟁력 제고 △수출유망품목 집중육성 △부존자원 활용한 소득자원 확충 △농촌생활개선 △농업인 욕구충족 중심의 기술개발 △지식·정보 경영을 갖춘 전문농업인 교육 △농가경영확신 기술지원 및 농업기술 정보화 등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올해 주요 추진 사업중 태풍 루사로 인한 쌀 생산량이 10a당 4백48kg에서 2백46kg으로 감소한 것을 가장 큰 피해로 전제하고 기상재해 예방 및 못자리설치에 따른 39%의 노력비 절감 효과와 낙산배 포장디자인 상표 의장 등록이 돋보였다고 다뤘다. 또한 재배사 살균 유류대를 35평당 1천0에서 2백50로 절감했으며,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자원은 기능성 수목재배로 2년 이후부터 10a당 2백50만원의 고소득이 예상된다. 분석도 내놓았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계기로 내년도에는 농촌 생활개선의 일환으로 산책로와 놀이마당, 휴게실, 방갈로 등 자연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기반시설을 설치해 농가소득 및 환경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김연홍소장은 "태풍피해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한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의 흔적들이 결실을 맺었다"며 "내년도에는 농업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업 정책 생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새해 영농설계교육 실시 "

- 1월 16일 ~ 28일까지 ... 시책홍보 등 11개반 운영 -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1월16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한다. 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전체 농가의 50%인 1천5백62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시책홍보와 영농기술 등 11개반에 걸쳐 영농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에는 수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에 따른 작황예상과 수해복구비 산정 문제 등 농경지 복구와 관련된 심도 있는 교육강좌도 준비해 놓고 있다. 특히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태풍 루사로 시름에 젖은 농업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시책홍보 분야 2개반을 새로 신설해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 농 / 사 / 정 / 보

### 1. 2002년산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접수

○ 벼 보급종 - 공급품종 : 오대벼, 화동벼, 상미벼 - 신청기간 : 2002.12.10 ~ 2003.1.20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 공급가격 : 30,220/20kg(포) - 공급시기 : 2003. 3월 중순  
 ○ 옥수수 보급종 - 공급품종 : 찰옥1호(간식용), 수원19호(사료용) - 신청기간 : 2002.12.10 ~ 2003.1.30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 공급시기 : 2003월중순 ~ 4월중순

### 2. 호맥파종 논 월동 관리

○ 재배면적 : 6읍면 97ha ○ 안전월동 : 재배포장 배수구 설치로 습해 및 동해방지

### 3. 동절기 농업생산시설 화재예방

○ 무기동복총하우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 동절기 생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재 실시 및 보완 - 배선상태, 화재보험 가입, 진화장비 비치, 화재경보기 설치

### 4. 기상특보(폭설, 강풍) 대비 하우스 관리

○ 강풍시 고정끈 및 지주목, 버팀목 설치 ○ 폭설시 비닐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위 쌓인 눈 쓸어 주기 및 버팀목 설치

### 5. 2003년도 한국농업전문학교 신입생 모집

○ 모집인원 : 219명 ○ 모집분야 :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축산학과 ○ 수업연한 : 3년 (현장실습 1년 포함) ○ 응시자격 :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으로 만37세 미만 ○ 원서교부 : 2002.12.2 ~ 12.30 (농업기술센터) ○ 원서접수 : 2002.12.21 ~ 12.30 (한국농업전문학교 - 경기도 수원시) ○ 특전 : 학자금 등 수업료 전액 국비 지원, 기숙사 제공,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및 후계농업인으로 추천선발 등 ※문의: 농업기술센터 인력개발담당 (전화 671-8772, 670-2551)

### 6. 2003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 계획인원 : 1,350명 ○ 교육기간 : 2003년 1월중순 ~ 1월하순 ○ 교육장소 : 문화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등 ○ 교육과정 - 의식개혁분야: 2개반 (농업인 학습단체 지도자반, 마을리장반) - 영농기술분야: 9개반 (벼농사, 표고버섯, 배, 화훼, 과채류, 복숭아, 한우, 양봉, 정보전산반)

## 문화유적 탐방

### - 명주사동종 -

쌍룡의 종뉴 아래 안으로 오무라든 종신이 연결된 형태로 종신을 2등분하여 위쪽에 원문범자, 기하학적인 사선문의 유곽, 4구의 합장천부보살상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명문과 구연부에 붙어 있는 하대가 배치되었다. 특히 원문범자 아래에 보살상이 있는 모습이 하나의 조를 이루어 유곽과 유곽사이의 4곳에 시문되었는데 이 원문범자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상대를 대신하고 있다. 대체로 양감이 있는 편인 이 동종은 종신의 모양이나 유곽과 하대의 위치 등

## 우리 마을 유적

### <29> 서면 서림리

#### - 서면의 서쪽, 산림이 울창하여... -

서면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삼림이 울창하여 서림리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또한 서림사가 있었던 연유로 서림골 또는 서림이라 하다가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림리라 하였다고 한다.

- 새림골 : 영덕리에서 서남간에 있다.
- 벽실골 : 벽실령으로 가는 골이며 암석이 벽과 같이 절벽을 이루고 있어 지어진 지명이다. 마을 동남쪽 골이다.
- 도장골 : 벽실골 동쪽에 있는 골인데 도장방과 같다하여 도장골이다.
- 조 봉 : 벽실골 남쪽에 있는데 황이리와 경계로 할미봉 맞은편 산 높이 1,183m
- 할미봉 : 도장골 남쪽에 있는 봉이 할미봉이다.
- 초란이터 : 벽실골 남쪽에 초란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의 집터가 있다.
- 강철이터 : 벽실골 안쪽에 강철이라는 사람의 집터가 있다. 할미봉과 도장골 중간 지점이다.

에서 한국종의 전통형식을 따르고 있음이 엿보인다. 다소 쇠잔한 듯한 쌍룡, 종신의 공간구조 및 저부조의 양각선으로 처리된 문양 등에서 기하학적으로 변모된 18세기 범종의 양식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어성전 4거리에서 좌측 이정표를 따라 약 2km를 더 들어감, 부도군에서 약 500m를 더 가면 명주사가 나온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양양군청 관광문화과 (033-670-2251)

- 홍살문 : 강철이 집터로 가는 남쪽에 홍살문이 있었다 한다.
- 용 소 : 벽실골 남쪽계곡에 용이 등천 하였다는 소가 있다.
- 미륵바위 : 황이골 동북간 입구 눈 가운데 미륵불처럼 생긴 자연석이 있는데 이 바위밖으로 미륵당을 짓고 산재를 지내는 산제당이다. 마을에서는 가뭄이 들면 이 제당에 제를 올렸다고 한다.
- 조침령 : 서림리에서 서쪽 진동리로 넘어 가는 령이 조침령이다.
- 반부독 : 동남간 조침령으로 가는 령 중턱에 평지가 있는데 소반같이 평평하다 하여 반평(반부독)이라 한다.
- 참새골 : 서림리와 북쪽 영덕리 3.8경계선 경계 지점 골이름이다.
- 뒷 골 : 서림리 1반 뒤에 있는 골이름이며 지당골 서북쪽골이다. □ 조침령골 : 조침령으로 가는 동북간 골이름이다.
- 황이골 : 서림리와 남쪽 황이리간의 경계골이다.
- 갈비바위소 : 영덕리와 서남간 서림리 사이 경계이다.

## 법률상담

### - 무허가 건물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

<문> 저는 제가 축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과 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다시 이 대지를 '을'에게 매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위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므로 법적으로도 철거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을'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건축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지상권 취득**

<답> 판례에 의하면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또,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받아 소유하다가 대지의 소유권만이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 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위 판례들에 비추어 귀하는 위 건물을 귀하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을'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다만, 을이 대지사용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법원에 자료청구를 한 경우 귀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제공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잡 / 깐 / 만!

### <강원도지역개발공채>

- ...1998년도에 발행한 「강원도지역개발공채」의 원리금을 상환하여 드립니다.
- 강원도에서는 1998년도에 발행한 「강원도지역개발공채」의 원리금을 상환하오니 상환기간이 도래한 공채를 소지한 분은 상환 받으시기 바랍니다.예) 1998년 6월 30일자 발행된 공채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2003년 6월 30일부터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단위농협에서 상환하여 드립니다.
- 상환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공채를 소지하신 분이 개인일 경우에는 공채매입필증, 신분증, 인장(자필서명 가능)을, 가족이 대리 수령하시려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 공채를 소지하신 분이 법인일 경우에는 공채매입필증,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대리인이 수령하시려면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상환업무 대행금융기관에 비치된 “공채원리금상환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즉시 상환하여 드립니다.

## 행정단신

### <4대보험 포탈사이트운영>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

대국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인터넷(4대 사회보험 포털)이나 각 기관의 지사 중 어느 곳을 방문하여 한번만 신고하면 동시에 처리됩니

### <보일러 관리 요령>

○...가스보일러를 고장없이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면 평소에 점검을 자주하고, 깨끗이 손질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스배관, 중간밸브 및 가스접속부에 비눗물을 도포하여 가스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난방배관 내의 수압은 1kg/㎥ 정도인지 확인하고, 압력이 낮은 경우 물보충수 밸브를 열어 수압을 보충 후 닫아준다.

▶ 연통이 부식이 되어 구멍이 나 있거나 이 물질에 의해 막힌 곳은 없는가 점검하여야 한다.

▶ 보일러의 외관에 오물이 묻으면 플러그를 뽑은 후 세제를 묻힌 걸레로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거하면 된다.

가스보일러를 사용중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수리 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 전화 1588-0420>

○...장애인전화 안내1588-0420 장애인 전화는 장애로 인해 각종 복지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각종 쪽지정보를 제공하고 조정해주는 장애인 정보 안내망으로 장애인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각종 정보를 전화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전화번호는 1588-0420이고 인터넷은 [www.0420.or.kr](http://www.0420.or.kr)입니다. 전화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입니다.

-전국을 하나의 대표번호(1588-0420)로 묶어 전국 어디에서나 가장 가까운 장애인 전화센터로 자동연결 됩니다.

-강원도 장애인 전화는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상담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

▶ 신고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근로복지공단(☎1588-0075) 각 지사 또는 노동부 고용보험 안정센터(☎1588-191

### <진료비주고받기 캠페인>

○...공단에서는 <진료비 주고·받고·보관하기>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주고 받으면 보험재정이 투명해지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신 후 꼭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양지사  
033-671-8681